



2016년 04월 2주차

■ 연구원 소식

○ 2016년 3차 운영위원회 실시

- 날 짜 : 2016.04.05.(火) 오후 5시 / 장 소 : 한국고전문학연구원 회의실
- 안 건 : 해외역사탐방 경비 지원 관련의 건

한식이기도 했던 지난 4월 5일, 홍성덕 운영위원장을 필두로 이미경, 한명수, 김건우, 하태진, 최우영 등 6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가 있었습니다.

해외역사탐방경비지원은 연구원 정기 후원회원의 경우 10%의 경비를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역사탐방 신청과 동시에 후원을 개시하는 신규회원에게도 동일한 경비지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오월길 답사와 관련하여 동행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유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과 전북 내 시민사회단체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과 대중인문학 사업의 강화 결의도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주신 운영위원회께 감사드립니다.



○ 정읍북부노인복지관, 김제지역자활센터 방문 및 협약체결

- 지난 4월 7일에 정읍북부노인복지관의 김복례 관장님과 김제지역자활센터의 이승재 센터장님께서 연구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상임이사의 전반적인 연구원 소개가 있었으며, 양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 광주 오월길 답사를 다녀왔습니다(4월 9일~10일)

: 우리 연구원과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K-histoty 사업단은 4월 9일~10일 양일에 걸쳐 오월길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답사는 지난 3월 7일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5·18기념재단의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

전주에서 출발한 35명의 답사단은 광주에서 합류한 7명의 연구원 회원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구 전남도청, 금남로, 518기록관, 전일빌딩 등 5·18 사적지를 답사했고 광주트라우마센터를 방문 센터 설립 배경과 운영 현황 및 전망을 듣고 국가폭력 희생자의 치유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석한 이인제 회원은 부정한 권력에 맞섰던 광주 시민들의 소중한 정신을 지키는 첫걸음은 역사왜곡에 맞서 진실을 찾는 길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오월길 답사를 인솔한 변주승 상임이사는 이십여명의 연구원 회원들과 사학과 전공수업으로 진행중인 역사와 치유 과목 수강생들이 함께 참가해 뜻깊은 답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고 평하였습니다. 이번 답사를 시작으로 5·18기념재단과 공동사업과 교류협력이 계속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가 부탁드립니다.



답사 첫 일정 5·18 신묘역 참배



구 전남도청 앞 오월지기와 함께



민주광장(구 전남도청)에 서다



5·18기록관 안에서...



광주트라우마 센터에서



5·18교육관에서 관련 영상물 시청



주먹밥 만들기- 대동세상을 생각하며...



상무대 영창에서 5월을 체험하다



법에 따라 재판받아야 할 법정인데...



1박2일의 짧은 여정을 마무리하며...

○ 연구원 소모임 “인자요산” 산행 안내(4월 13일 수요일)

: 권리이자 의무인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신 후 10시 30분까지 한국고전문화연구원으로 오십시오. 회원들과 함께 걷는 완주군 경천면 화암사와 불암산 산행이 있습니다. 산행을 마친 후 조한승 회원이 운영하는 비봉갈비탕에 들려 맛있는 갈비탕과 동동주도 예정되어 있으니 뜻있는 분은 4월 12일(화)까지 연구원 사무국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원 “해외역사탐방” 안내

: 오는 6월 26일(日)~7월 1일(金), 5박 6일간 “윤상원 교수와 함께하는 해외역사탐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역사탐방은 러시아 한인독립운동을 연구하고 있는 윤상원 교수(전북대 사학과)와 함께 진행합니다. 윤상원 교수는 국내 최고의 러시아 한인독립운동사 연구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기 원동해방전쟁과 한인부대의 활약을 비롯해 수십편의 연구논문을 통해 일제 강점기 전후 러시아 한인 사회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해외역사탐방 일정을 기획하였고 전체 일정을 함께하며 현지에서 생생한 러시아 근현대사와 일제강점기 연해주에서 활약한 조선인 독립투사의 흔적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1차 답사를 시작으로 향후 6회에 걸쳐 중앙아시아를 관통하고 서유럽까지 진행될 유라시아 횡단 해외역사탐방의 장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신청은 4월 29일까지이며 문의사항은 우리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뉴스레터와 함께 보내드리는 논문은 답사 전 읽어볼만한 자료이니 부담없이 천천히 만나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 도시 | 답사지 |
|----|-------------------------------|---|
| 1일 | 인천 블라디보스톡 | 루스키 섬 독수리전망대 조명희 기념비 신한촌 울 브린너 생가 해안 - 노을과 술 |
| 2일 | 블라디보스톡 크라스키노 슬라비얀카 | <블라디보스톡> 기차역, 여객터미널, 혁명광장, 잠수함박물관, 고려사범대학, 시장과 백화점 <한인마을> 아지미, 시지미, 포세트 치신허 - 최초마을 크라스키노(연추) 등등 |
| 3일 | 슬라비얀카 햇산 크라스크노 우수리스크 | 두만강철교(한중러 국경) 햇산역 라즈돌리노예(하마탕) 88국제여단 숙영지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 |
| 4일 | 우수리스크 | 이상설 유허지, 발해성터, 최재형 고택, 전로한족총회 개최지, 고려사범전문학교 등 고려인 유적 러시아정교당, 4월참변 유적지 등 러시아 유적 |
| 5일 | 하바롭스크 | 한인사회당 관련 유적지김알렉산드라 관련 유적 강제이주 관련 유적지 김일성부대 숙영지 블로차예프전투 유적지 하바롭스크 도시 관광 아무르강 유람 |
| 6일 | 하바롭스크 인천 |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 해를 기약... |

※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16년 연구원 소모임 안내

■ 첫 번째 소모임

- 동아리명 : 역사영화동아리 '심야(心惹) 영화'
- 활동목적 : 역사를 주제로 한 영화를 통해 회원 간 생각을 공유
- 구성인원 : 회장, 총무 각 1인 / 5명 이내
- 세부계획 : 전북권 내 영화관에서 단체관람 후 토론
해당 영화 비 상영시 연구원 내 프로젝트 활용하여 관람
- 활동계획 :

| 일 시 | 내 용 | 비 고 |
|--------|-----------------------|-----|
| 4월 19일 | 잘 돼 갑니다 / 효자동 이발사 | |
| 5월 18일 | 꽃잎 | |
| 6월 25일 | 태백산맥 | |
| 7월 中 | 답사(추후 계획공지) | |
| 8월 15일 | 일본의 가장 긴 하루 / 쉼들러 리스트 | |

■ 두 번째 소모임

- 동아리명 : 인자요산(仁者樂山)
- 활동목적 : 등산과 답사를 통한 회원 간 소통의 장을 만들고 연구원 사업에 적극참여
- 구성인원 : 회장, 총무 각 1인 / 15명 이내
- 세부계획 : 전북권 500m 미만 산과 인근 지역 답사 및 산행
3월~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답사와 산행
- 활동계획 :

| 일 시 | 내 용 | 비 고 |
|---------|---------------------------------|-----|
| 4월 13일 | 화암사와 불명산(해발 480m / 완주군 경천면) | |
| 5월 21일 | 간재선생 유지와 계화산(해발 244m / 부안군 계화면) | |
| 8월 20일 | 봉어섬과 국사봉(해발 475m / 완주군 구이면) | |
| 9월 24일 | 망해사와 진봉산(해발 72m / 김제시 진봉면) | |
| 10월 22일 | 섬진강과 옥출산(해발 276m / 순창군 풍산면) | |
| 11월 19일 | 군산저수지와 청암산(해발 118m / 군산시 회현면) | |
| 12월 17일 | 쑥고개와 천잠산(해발 159m / 전주시 삼천동) | |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04월 11일(月) : 주간회의
- 04월 13일(水) : 인자요산 모임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望 泰 태산을 바라보며

岱宗夫如何(대종부여하) / 齊魯青未了(제로청미료)
造化種神秀(조화종신수) / 陰陽割昏曉(음양할혼효)
盪胸生曾雲(탕흥생증운) / 決眦入歸鳥(결자입귀조)
會當凌絕頂(회당릉절정) / 一覽望山小(일람망산소)

■ 작자소개

- 두보(杜甫; 712~770). 성당(盛唐) 때의 대시인으로, 자(字)는 자미(子美). 호는 소릉(少陵). 안사(安史)의 난으로 사방을 유랑하다가, 장강의 배 위에서 숨을 거뒀다. 이백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그의 시는 이백과 달리 웅혼하면서도 침통하여 사실주의 문학의 백미로 손꼽힌다. '시성(詩聖)'으로 불린다.

■ 감 상

- 두시상주(杜詩詳註)』에서는 이 작품에 대해, "이는 동악(東嶽)을 보고 지은 작품으로, 네 가지 층차를 써서 의경(意境)을 그려냈다. 첫 연은 멀리서 바라볼 때의 경색(景色)이고, 다음은 가까이서 볼 때의 형세이다. 셋째 연은 세세하게 바라볼 때의 경치이고, 마지막 연은 끝까지 바라볼 때의 감정이다. 위 여섯 구는 실경을 묘사한 것이고, 아래 두 구는 가상해서 그린 것이다."라고 평하였다. 청년 두보의 장쾌한 기상이 엿보이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